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

1. 기관의 이해

I. 기관의 이해

1. 기관현황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05. 1. 28)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현안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 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연혁	<p>2015.10 기관명 변경 : 전북연구원 2015.10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2014.10 제6대 강현직 원장 취임. 2011.11 청사이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005.03 재단법인 전북발전연구원 설립 2005.03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청산 2005.01 기관명 변경 : 전북발전연구원</p>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 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지역의 경제, 발전, 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 기관과 민간 단체 용역 수탁 연구 도서 발간, 국내외 연구 기관 간의 공동 연구 및 정보 교류와 협력 																																																												
조직 및 인력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 원장-2실/6부/1센터/(부설기관 : 여성정책연구소) 인원 : 정원 38명 / 현원 35명 																																																												
예산규모 (2016)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세입예산액</th> <th style="width: 15%;">비중(%)</th>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세출예산액</th> <th style="width: 15%;">비중(%)</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사업예산</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사업예산</td> </tr> <tr> <td>출연금</td> <td style="text-align: right;">3,430</td> <td style="text-align: center;">49.5</td> <td>판매비와일반관리비</td> <td style="text-align: right;">5,871</td> <td style="text-align: center;">84.8</td> </tr> <tr> <td>사업수입</td> <td style="text-align: right;">1,987</td> <td style="text-align: center;">28.7</td> <td>성과급</td> <td style="text-align: right;">123</td> <td style="text-align: center;">1.8</td> </tr> <tr> <td>보조금수입</td> <td style="text-align: right;">514</td> <td style="text-align: center;">7.4</td> <td>예비비</td> <td style="text-align: right;">8</td> <td style="text-align: center;">0.1</td> </tr> <tr> <td>이자수익</td> <td style="text-align: right;">50</td> <td style="text-align: center;">0.7</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자본예산</td> </tr> <tr> <td>기타수입</td> <td style="text-align: right;">13</td> <td style="text-align: center;">0.2</td> <td>자본적지출</td> <td style="text-align: right;">921</td> <td style="text-align: center;">13.3</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자금예산</td> <td>-</td> <td>-</td> <td>-</td> </tr> <tr> <td>자본적수입</td> <td style="text-align: right;">929</td> <td style="text-align: center;">13.4</td> <td>-</td> <td>-</td> <td>-</td> </tr> <tr> <td>계</td> <td style="text-align: right;">6,923</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계</td> <td style="text-align: right;">6,923</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body> </table>	구 분	세입예산액	비중(%)	구 분	세출예산액	비중(%)	사업예산			사업예산			출연금	3,430	49.5	판매비와일반관리비	5,871	84.8	사업수입	1,987	28.7	성과급	123	1.8	보조금수입	514	7.4	예비비	8	0.1	이자수익	50	0.7	자본예산			기타수입	13	0.2	자본적지출	921	13.3	자금예산			-	-	-	자본적수입	929	13.4	-	-	-	계	6,923	100	계	6,923	100
구 분	세입예산액	비중(%)	구 분	세출예산액	비중(%)																																																								
사업예산			사업예산																																																										
출연금	3,430	49.5	판매비와일반관리비	5,871	84.8																																																								
사업수입	1,987	28.7	성과급	123	1.8																																																								
보조금수입	514	7.4	예비비	8	0.1																																																								
이자수익	50	0.7	자본예산																																																										
기타수입	13	0.2	자본적지출	921	13.3																																																								
자금예산			-	-	-																																																								
자본적수입	929	13.4	-	-	-																																																								
계	6,923	100	계	6,923	100																																																								

2. 기관분석

1) 거시환경분석

□ 정책환경

- 수요자 중심의 연구, 연구성과 확산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2015년도부터 연구 및 경영 분야에 성과관리(성과평가) 항목이 전면 도입되어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평가가 강화됨
 -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 연구과제 진행, 과제 종료, 환류 단계에서 각 심의 회를 거쳐 연구발표회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구진행 전 단계에서의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였음
- 정부에서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예산을 2배 확대하고, 연구과제의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평가체계 정립을 추진 중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 및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할 예정임
- 지역 창조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인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과 보급이 충실하게 진행되기 위해 정부출연(연), 전문생산(연), 국공립(연)간에 적절한 기능과 역할 배분 및 협력 증진에 대한 요구가 존재함
 - 전북연구원은 대외 소통 매커니즘을 통해 연구성과 시책 관련 도지사 소통, 전북연 경영혁신에 대한 이해관계자 소통, 정책 전문가와의 소통, 현대경제연구원과의 교류협력 등을 실시하였음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의 연구성과 지표로 연구시간 및 연구결과물 등의 투입지표 혹은 산출지표 보다는 연구성과 활용도 등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래부에서는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게재비율과 같은 우수성 지표 설정을 권장하고 있음

□ 경제환경

- 2015년 기준 국가연구사업개발 투자액은 188,747억 원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6.2%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규모의 연평균 증가율 5.3%보다 약 1.2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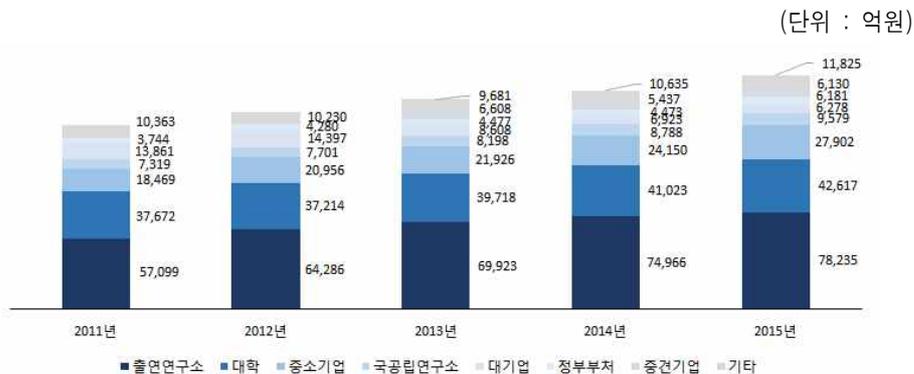
- 정부연구비 증가와 함께 과제 수 또한 증가하였으며, 과제 수 증가율은 연평균 7.2%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액 및 과제 수〉

* 출처 :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출연연구소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학, 중소기업, 기타, 국공립연구소, 대기업 등의 순임
- 전년대비 투자액은 대기업, 정부부처, 중견기업은 감소한 반면, 출연연구소, 대학, 중소기업, 국공립연구소 등은 증가함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 출처 :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 지역별로 살펴보면, 단일지역으로 대전광역시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도권이 36.7%, 지방이 33.3%임
- 전라북도의 경우 2015년 투자액은 5,154억으로 2.8%를 차지하며, 2014년 대비 50% 증가함
- 지역출연연구소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70%는 대전 및 수도권에 투자되고 있으며 나머지 12개 시·도 지역에 투자되는 연구비는 30%에 불과하여 지역의 연구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사회 및 기술환경

- 2016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소속 정부 출연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 연구·개발(R&D) 관련 여론조사 결과 ‘R&D 연구환경, 처우, 조직문화 등을 고려했을 때 연구활동을 하고 싶은 국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가 ‘기회가 되면 미국, 중국 등 해외로 나가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오면 고민해보겠다’는 응답도 37.1%로 나타남
 - 응답자의 약 85%가 국내에서 보다는 해외에서의 연구 활동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연구 현장에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이 56.8%로 나타났으며, ‘수직적 조직문화, 과도한 행정업무 개선’이 25%, ‘국가 R&D 정책 컨트롤타워 등 체계 개편’이 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등이 보장되는 여건조성 등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줌

2) 미시환경분석

□ 정책지원 연구

- 도에서는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으로 기계부품산업, 건강기능식품산업, 해양설비기자재산업, 경량소재성형산업, 복합섬유소재산업을 선정함
 -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및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으나 자동차, 탄소섬유, 바이오소재 분야의 산업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에 비해 도시발전계획 및 관광콘텐츠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전북의 미래 주력분야인 탄소융합 관련 연구가 필요한 재료분야의 공공연구기관은 부안소재 재료연구소가 유일하며, 부안군의 재료연구소는 풍력시험동으로 탄소융합 신소재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상황임
 - 도내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추진과 더불어 적정 연구분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핵심산업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대학과의 협력연구 증진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전북의 공공연구조직은 출연연 9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개, 국공립연구조직 43개 등 총 72개 기관이 존재하며,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분야, 기계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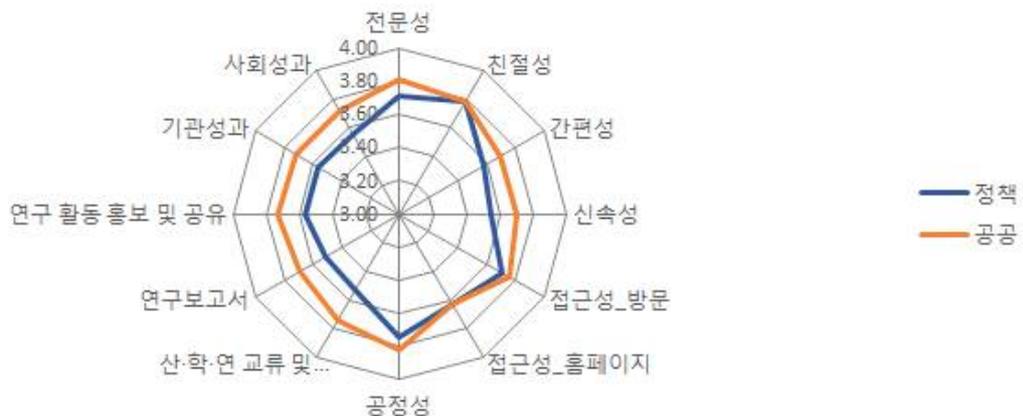
* 출처 : 지역 출연연 및 전문생산연의 예산 및 인력 현황, 201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해관계자 요구

- [중앙정부] R&D투자 효율화 및 성과제고를 위해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R&D 역할배분 및 협력 증진을 요구함
- [도 및 의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Think-tank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인력 전문성 및 연구성과 확산에 대한 요구가 존재함
- [이용고객] 전북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한 특화되고 전문화된 연구 실시 및 연구결과 공개에 대한 요구가 존재함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공공고객의 만족도가 정책고객 보다 높은 편이며, 친절성과 접근성 항목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 정책고객의 경우 연구활동 홍보 및 공유, 연구보고서, 산·학·연 교류 및 네트워크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주요사업/서비스인 연구활동 및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 2017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고객만족도 조사 >

II. 평가 결과 종합

II. 평가결과 종합

1. 총 평

- 기관장 취임 후 3년차인 '16년도에는 연구성과 향상을 위한 도전적 목표를 통한 국책사업의 발굴과 수행이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연구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과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연구자 중심 효율화에 집중” 하였음
- 내부 기강 확립과 제도 개선, 현안문제 해결 및 과제 수행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보였음. 그러나 기관의 중장기 전략 수립 등 미션과 비전이 구체화 되지 못했으며, 4차산업 혁명 등 대외적 환경여건의 변화가 크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전략적 방향과 역할에 대한 논의 및 검토는 다소 미흡함
- 4차산업 혁명에 대한 전라북도의 수용여건을 진단하고 전북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4차산업 혁명과 2030미래발전방향”이라는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노력하였으나 전략적 대안마련 및 방향, 목표 등에 있어서는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함
- 수익 비중이 큰 출연금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입의 감소로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되었으며 재정자립도 감소 및 부채비율 증가하였음. 중장기 경영전략 상 비전과 미션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은 양호하며 예산 대비 집행에 대한 분석 등 재무관리는 양호한 편임
- 민선6기 도정방침에 기반하여 현 기관장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전북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일정한 성과창출을 이룸. 또한 평가 대상기간내 외부 지적사항 및 도와 체결한 기관장 성과이행계약에 대한 우수한 달성 성과를 창출하였음
- 기관에서는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책수요자인 전북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책만족도가 매우 높음. 하지만 연구원들에 대한 자기계발활동 지원이 부족하며, 연구과제의 선정이나 평가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공통지표

-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래 전북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획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수행하는 등 전북 발전방향을 기획하는 등 미래 지향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농업, CT, 신소재, 바이오, 공간정보, 연구개발특구, 신에너지, 미래자동차 등 8대 분야의 정책현황 공유와 분야별 전라북도 도입가능한 신성장동력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미래전략포럼을 운영하고 있음
- 8대 분야에 대한 향후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해당 분야별 기능을 수행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분야별 발전전략 및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세부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정기적, 공개적으로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수익 비중이 큰 출연금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입의 감소로 매출액(사업수익)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 사업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용의 증가로 당기순이익 적자전환 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었음
- 부채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차입금의 증가가 아닌 부가세예수금의 증가이므로 재무상태가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기관의 부채규모가 작아 운전자금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중장기 경영전략 상 비전과 미션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은 양호하며 예산대비 집행에 대한 분석 등 재무관리 양호 함
- 2016년 중 이사회결의를 통해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중임

3. 사업지표

- 연구원은 특별감사 이후 대대적인 경영혁신 작업을 펼친 바 있으며, 특히 전북 도정 싱크탱크로서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를 목표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전북연구원에서는 연구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구과제선정위원회-착수연구심의회-연구자문위원회-최종연구심의회 등 연구수행과 관련된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정책수요자인 도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연구과제 중 고정 핵심과제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정책만족도도 90점 이상으로 나타남
- 연구과제의 발굴을 위해서는 전북도 이외에도 도내 연구기관이나 출연기관 등과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나 실적이 미흡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도민 공모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연구과제 발굴실적이 저조함
- 연구과제 이력관리를 통해 연구과제 발굴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3년간 연구과제의 성과이력관리를 통해 연구과제가 정책에 반영되는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연구과제의 발굴부터 평가까지 전북도가 참여함으로써 전북연구원의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며, 평가에도 도의 평가가 매우 큰 변별력을 가지고 있음
- 연구과제수행의 지원방안으로 각종 세미나, 자문회의 등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여 전문연구원의 예산은 감축됨. 연구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연구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 연구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학회출장 등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으며, 전문학술지 등에 대한 논문게재실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원의 학술지 등 논문게재실적이나 논문발표실적은 크게 축소되고 있음
- 연구원들의 연구역량강화와 학술정보교류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산·학·연 교류실적은 외형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2배나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공동연구의 수행이나 인적교류 등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성과물에 대한 다운로드 수는 과제당 528건으로 예년대비 67%나 증가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전국적인 연구망인 DBPIA를 통한 1년간의 다운로드 수는 총 300여 건에 불과하여 양자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연구성과물에 대한 언론보도실적은 421건으로 예년대비 71%나 증대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언론보도결과도 잘 모니터링 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보도가 지역신문 등에 국한되어 홍보효과가 한정적이므로 전국단위로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기관 운영방향

- 기관장은 기관의 대내외 인지도 향상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혁신 활동과 내부 관리체계 등 제도 개선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직장윤리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점이지만, 자칫 연구수행의 특성 상 연구의 업적과 노하우의 대외 공유와 소통을 통한 연구역량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을 수 있음
 - 대외활동을 융통성 있게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연구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연구품질 제고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이는 자연적으로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Needs 파악 등 새로운 연구과제 발굴과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이직 등 연구인력 이탈을 우려하는 방편으로의 대외활동을 지양하고, 연구환경여건 개선과 성과보상을 통한 동기부여와 연구에 애착을 갖고 매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 기본·기획과제, 정책과제, 현안·단기과제 수행금액이 과거년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탁사업 및 협약사업, 기타 사업 등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도정과 관련한 연구과제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바탕으로 하되 전북도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연구, 학계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연구수행 인력의 역량향상 관점에서 볼 때 중장기적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의 대외활동 중 하나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지자체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류 협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이 필요함. 예를 들면 관내 대학과의 분야별 또는 분과별 정기적 교류 및 공동연구과제의 발굴과 활용방안 연구 등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임
 - 2020 스마트 농생명 밸리(가칭)와 관련한 5개 농생명 클러스터의 활성화 및 발전 방향 모색
 -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조성으로 전북도 미래먹거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와 논의 필요

- 연구과제별,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 제시 및 추진 방향성 확립
 - 기관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주기적 소통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이 필요함
- 개별 연구원의 역량이 전북연구원의 역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전북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지원실적이 미흡함. 이러한 원인은 연구원의 기능을 단기적인 도정지원을 위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정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하지만 전북연구원의 기능은 단기적으로 도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리포트의 작성 뿐 아니라 도내외의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한 중장기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절실하며, 단기 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체제는 지양될 필요가 있음. 현재의 단기성과 중심의 평가는 오히려 연구원의 사기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전북연구원의 위상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음
- 연구과제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과제의 발굴도 매우 중요함. 이때 연구과제는 정책수요자인 전북도 뿐 아니라 도내외의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야 함.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과제의 발굴 뿐 아니라 평가에 있어서도 전북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전북도의 요구사항이 너무 크게 작용함
- 때에 따라서는 전북도의 정책에 비판적인 연구도 필요하며, 학술적이거나 장기적인 과제의 수행도 필요함
 - 따라서 과제의 선정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기관(또는 위원회)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제의 발굴에 있어 전북도 뿐 아니라 도내 유관기관, 출연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전북연구원 자체의 연구역량으로 모든 연구과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우므로 도내외의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연구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의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개선과제

- 기관장의 재임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중장기적 전략방향과 목표의 수립이 시급하며, 대외 환경변화를 적극 분석·활용하여 선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도정 지원을 위한 연구 수행의 목표와 범위는 정할 수 없겠으나, 이를 잘 분류하고 도와의 협의를 면밀히 수행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획과제, 창의과제를 일정부분 소화할 수 있는 인력운영이 필요함 이는 학계, 유관 국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정보의 교류, 데이터의 공동활용, 시너지 방안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북도 전략산업 등 공동연구를 통한 공론화와 적용 및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각 분야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연구원의 일정부분 역할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이를 실천해야 함
- 연구인력 개개인의 실적과 경력을 위한 대학강의 등에 국한하지 않고 관내 우수 인재(학생 등)들과의 협력과 소통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미래 전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음
- 연구원 및 인력간의 교류 협력을 넘어 교환 연구 및 파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의 역량확보와 연구의 융·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함
 - 4차산업 혁명과 같은 융·복합 시대에 한가지 분야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시너지와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과감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교류 협력이 중장기적으로는 기관 내부의 융·복합 연구로 이어짐으로써 새로운 과제의 발굴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출연금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사업수익)이 감소한 것은 기관의 고유업무로 인한 수익인 사업수입의 감소로 인한 효과가 큰 만큼 기관의 연구경쟁력 및 수주능력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 노력이 필요함
-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경우 일정부분은 전북도와 협의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유관기관이나 출연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과제평가시스템은 도의 평가에 의한 변별력이 크고, 외부전문가의 선정이 연구자 및 연구부서에 의해 이루어져 객관성이 부족함. 이에 따라 도 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비대면평가로 전환하여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의 장기적인 자기계발 활동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며, 학술논문발표 등을 성과평가에서 의미 있게 반영하여 연구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
- 도내외 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연구원에서 축적한 지역관련 조사데이터를 개방하면 공동연구 등에 있어서 개선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부 SOC관련 연구를 제외하면 대형 국책과제 선정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인데 대형 국책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함. 이를 위해 TFT의 구성을 할 필요가 있음
-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정책브리핑 및 이슈브리프 등을 더 많이 발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게시판을 만들면 양방향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